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강의 25,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와 디도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 디도에 관한 신약 역사와 문학 강의 25강의 Dave Mathewson 박사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월요일에 보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실제로 바울 서신 모음의 마지막 세 권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토론을 바울의 편지 전체로 마무리하면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적어도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편지들은 우리가 살펴볼 바울 서신 모음에 속하는 마지막 세 편지입니다.

그런 다음 히브리서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신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도부터 시작하고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고 바울 서신 모음의 마지막 세 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피조물로서, 당신의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소통하실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기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단순히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만을 담고 있는 문서들의 모음집이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고통과 노력, 모든 시간과 노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반이 최초의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들었을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의 당신의 백성이 들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의 일부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즉, 아마도 바울의 독자들, 데살로니가의 독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바울의 편지에 반응했거나 과도하게 반응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 자신이 자신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편지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이후에 언젠가는 그들이 이미 주님의 날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라는 표현은 24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상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는 주로 그들의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월요일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던 이 세 가지를 지적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할 특정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날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은 주의 날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가 언급한 세 가지는 패역과 불법의 사람과 바울이 현재 말하고 있는 금지하는 자는 제거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해석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것은 억제 장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월요일에 매우 빠르게 진행하면서 제한 장치가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로마제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제국 자체가 악을 억제하는 견제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제거될 제지자였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거될 억제 장치가 바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도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내가 이미 말했듯이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바울이 이미 이전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선교 여행에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의심할 바 없이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독자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건 그렇고, 아마도 이것은 바울의 생애 동안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났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일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생애 동안에 아주 잘 발전하고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요점은 어떤 사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인들은 그것이 주의 날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후서에는 일하지 않는 몇몇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이미 주님의 날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과 연관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고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 일이 무엇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마지막 때, 즉 주의 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한편으로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둘러싼 사건들에 온전히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는 주의 날이 이미 왔고 이미 이르렀다고 결론짓는 데 너무 이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정경 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병치함으로써 동일한 신약 정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간 다른 관점을 병치함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어떤 의미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4장을 다시 읽어 보면 바울은 심지어 예수께서 그들의 생애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 올려져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는 그리스도께서 한동안 지체하실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가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그리스도는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으며, 지체하실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점은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실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실 수 있는 데살로니가후서뿐이라면 그것은 조만간 내 삶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1차 걸프전, 즉 1990년, George Bush Sr.가 대통령이었을 때인 90년대 초반에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걸프전이 격화되던 어느 날, 라디오 방송국을 켜더니 수많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고 테이블 주위에 수많은 예언 구루들이 앉아 있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송이 방송되던 때가 기억납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많은 예언 전문가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이러한 사건들과 그것이 성경적 예언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복음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친구와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과 나는 이 사람들의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입이 떡 벌어졌고 꽤 잘 알려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CD를 넣고 은행 계좌를 비워서 주님의 사업, 아마도 그분의 교회와 사역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끝이기 때문에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도 '그래, 이게 끝이야'라고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러분의 모든 돈을 주님의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과 세상 종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9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알 수 없다는 관점을 놓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또한 그분이 지체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균형이 신약성서 전체에 걸쳐 일종의 기대와 동시에 지연의 형태로 발견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때때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더 나쁜 것은 오히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90년대에 라디오에서 이 사람의 조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약간 다른 종말론을 함께 묶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모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간이 있고 우리 자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 자신의 일을 하고 인생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메시지.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모두가 들어보셨을 것처럼, 나는 아직도 가끔 은행 계좌나 고액 대출을 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후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는 꽤 오랜 시간을 지체하실 수도 있고 당신은 그 대출금이든 뭐든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현명하게 생활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찬은. 우리가 보게 될 디모데전서, 그 다음, 실제로 다음 세 권의 책은 바울 서신 모음의 마지막 세 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 서신 모음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이유로 골로새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세 글자는 디모데 첫째, 둘째와 디도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을 함께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고 불리는 모음집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종종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아마도 목회 서신보다 더 나은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장로와 집사를 선택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 구조와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는 이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이 편지들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지만, 목회서신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내 생각에는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라고 불릴 만한 가장 좋은 책은 디모데전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부르는 에베소서가 에베소라는 도시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문구는 원본 사본에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실제로 매우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기독교 단체나 교회나 특정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디모데는 분명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는 그 내용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서로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기억하세요.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처럼 첫째와 둘째가 있을 때마다 대체로 길이 순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는 그것이 기록된 순서라고 반드시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디모데 첫째와 둘째와 디도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순서이지만 반드시 기록된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할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읽을 때 바울은 분명히 처형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끝이며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분명히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문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가 어디에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디도가 먼저 기록되고 디모데가 두 번째라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주장하지만 일부는 디모데가 두 번째라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다시 말하지만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 순서가 반드시 기록된 순서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디모데가 두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책. 바울은 분명히 죽음과 사형집행인의 블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의사소통입니다.

이제 첫째, 디모데 첫째와 둘째와 디도서, 특히 첫째와 디도서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은 이 편지들이 바울이 실제로 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종종 의문이 제기되는 편지들입니다. 그 이유는 1세기, 실제로는 1세기까지 이어지는 기간과 심지어 그 조금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가명, 즉 가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꽤 흔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문학 작품의 작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망한 유명한 인물이나 유명한 영웅을 쓰기로 선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아마도 그는 자신이 실제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정신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기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쓴 글을 실제로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풀이 실제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을 속이지는 않았을 것이며 저자는 그들에게 속여서 바울이 실제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도록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름, 특히 영웅이나 유명한 인물과 같은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가명은 상당히 일반적인 문학적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기되는 질문은 신약성서의 문서 중 가명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언어와 문체를 목회서신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 편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쓴 편지들, 즉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은 그가 사용하는 문체와 어휘가 그 책들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바울이 그 편지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둘 사이에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서신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바울이 쓴 초기 편지들인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도 있습니다. 심오한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 예를 들어,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믿음에 의한 칭의와 같은 신학적 주제 중 일부는 언급되지 않으며, 그가 다른 서신에서 말하는 주요 주제 중 일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금 다르게 개발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고정된 보증금, 자신이 전달하는 고정된 교리 또는 가르침의 본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울의 가르침 및 그의 다른 서신에서 복음에 대한 강조점과 뚜렷한 차이로 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에는 없는 신학적 주제가 있거나,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는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쓰지 않았거나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후의 교회 조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서신에서 상당히 고도로 조직되고 구조화된 교회를 본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1세기에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욱 카리스마 있고 느슨하게 구조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 그리고 세심하게 조직된 리더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서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서신은 나중에 나왔음에 틀림없다. 이는 구조화된 리더십을 반영합니다.

이는 바울의 생애 이후 어느 시점에나 가능했던 교회 조직과 구조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들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명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쓰지 않았거나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아마도 그의 제자, 어쩌면 바울의 추종자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죽은 후 이제 에베소의 상황을 다루기 위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편지를 읽는 독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것을 썼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고, 단지 가명이 흔한 수단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아마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제자이거나 추종자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적 주제는 바울 서신의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교회 조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교회가 더 카리스마 있고 은사를 강조하는 고린도전서를 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는 교회를 다스리는 더 신중하게 구조화된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잠시 존재. 또는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은 가르침의 보관소, 바울이 전하는 더 잘 정의된 가르침의 본체로 더 많이 이해됩니다.

다른 하나는 목회서신의 윤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서신의 윤리가 경건을 강조하고, 교회가 적대적인 환경, 이교도 환경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윤리는 교회가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될 세속적인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에 보여주려고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 삶을 살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교회가 한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교회와 조화를 이루고 교회와 조화롭게 살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현상 유지를 너무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지적하고 단지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생애 이후의 훨씬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가명이 매우 일반적인 장치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바울은 아마도 바울이 아마도 몇 년 이상 에베소 교회에 말했을 그런 종류의 글을 쓴 바울의 제자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폴의 죽음 이후. 그리고 아마도 독자들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이름으로 쓴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속은 것이 아니었고, 디모데전후서의 저자와 디도도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내 말은,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것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그것이 바울이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로 그것을 쓰지 않았다면 그들은 속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간증은,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과 글을 쓴 사람들을 기억하면, 초대 교회의 간증은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누군가를 속일 수 없는 문학적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신약성서의 가명 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쓴 필명으로 읽어야 할까요? 과학적 정확성으로 100% 절대적인 확실성을 얻을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 편지들의 저자라는 초대교회의 증언을 시작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 말은, 우선 언어와 문체로 이러한 반대를 살펴보세요. 신약성서의 다른 어떤 저자보다 바울이 쓴 책이 더 많지만,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 비교를 할 만큼 바울의 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글을 쓸 수도 있었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즉, 저자의 문체와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비교하려면 신약성서에 있는 것보다 바울의 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에 바울이 이런 문체로 쓸 수 없었다거나, 바울이 결코 이러한 어휘를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그것들이 너무 독특해서 바울이 쓸 수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만큼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쓴.

바울이 무엇을 쓸 수 있었는지, 무엇을 쓸 수 없었는지 판단하려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스타일이나 어휘에 기초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더 확신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편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시 신학적인 차이이다.

다시 말하지만, 먼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같은 주요 가르침이 없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화목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 신학적 주제 중 일부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제로는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 말은, 바울은 매번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까? 그가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그가 평소에 강조했던 다른 주제나 이 시점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던 다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편지를 조정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주제 중 일부를 강조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와 바울의 다른 편지들 사이의 거리가 그 차이가 아주 극심하고 주제가 그렇게 발전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중간 부분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거나 이 주제가 이렇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나중에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사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교회 조직에 관해 실제로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적은지 흥미롭습니다.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편지를 주의 깊게 읽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세기 초의 초대교회는 나중에까지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리더십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꽤 초기에 교회에는 구조와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감독과 집사, 대장로, 수석 감독,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고도로 조직되고 구조화된 교회를 통해 바울의 초기 편지들 중

일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교. 1
 디모데와 디도는 단순히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것들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여기에서 '예,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이 편지들을 썼다는 초대교회의 증언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울이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의
 저자라는 가정하에 운영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점은 그의 상황, 그가 다루고 있는 상황 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바울의 저자에 관해 말한 것은 바울이 썼든 아니든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로 디모데전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왜
 쓰였나요? 디모데전서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은 바울이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동안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었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제가 교회 매뉴얼 접근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일종의 교육 매뉴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장로와 집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3장). 그것은 교회의 여러 그룹을 관리하는 방법, 장로가
 해야 할 일, 집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는지 알려주기 위해 쓴 일종의 교육 매뉴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특정 교회 정부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종종
 디모데전서에 호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중형 정부이든,
 장로형 통치형 교회 정부이든, 장로교나 성공회형 교회 정부이든 상관없습니다.

종종 그것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의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선출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서 그러한 종류의 질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디모데전서는 일종의 교회 매뉴얼, 즉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디모데전서의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나는 아직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절과 4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당신에게 권한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은 것은 그가 주된 수신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마게도냐로 가던 중에 너에게 권한노니 에베소에 머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이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즉, 바울이 이 글을 쓴 주된 목적은 우리가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본 목적, 즉 현재 교회에 침투하여 참된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일종의 거짓 가르침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인 디모데를 임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임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참된 훈련과 믿음을 통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발전 대신에 이런 거짓 교리나 족보 등에 대한 끝없는 추측을 조장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회 매뉴얼이 아니라, 주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협이 되는 일종의 왜곡된 가르침이나 거짓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책임 갈라디아서 및 골로새서와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하려는 일이 주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임명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분명히 디모데는 중재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는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디모데에게 지시하고 있으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전해져야 할 지시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디모데전서 에베소 교회의 명령의 대부분을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일종의 중재자, 즉 이 정보를 중재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디모데가 이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디모데전서가 대략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목적을 이해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대략 각 장, 각 주요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섹션은 디모데가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고 다루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실제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거나 붙잡힌 사람, 이전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예로 자신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구분은 대략적입니다(1장, 2장). 그러나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두 번째 방법은 올바른 교회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 가르침이 행하고 있던 일 중 하나는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교회에 혼란과 혼란을 야기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완전히 색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올바른 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2장 전체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집에서나 사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2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세 번째 방법은 자격을 갖춘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장로와 집사를 선택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연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선지자가 교회의 다양한 그룹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회복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은 여러 집단과 과부들에게 그들이 장로들을 대하는 방법과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었던 간에 교회에 혼란과 혼란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은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교회 내에서 다양한 그룹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관찰하고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5장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마지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대우하라고 권면합니다.

나는 그것을 잠시 남겨 두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지만, 이는 우리의 서구적 사고방식과 모든 것을 멋진 사운드 바이트 또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멋지고 깔끔한 테마로 캡슐화하려는 우리의 욕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디모데전서 3장의 한 부분이나 이 책의 지배적인 주제 또는 지배적인 주제 중 하나를 요약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3장 15절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언젠가 에베소에 있는 너희를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이 집이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3장 15절은 이 편지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인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모든 지침이 그러한 목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 이것은 또한 교회가 1세기에 가정의 계열을 따라 일반적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가정이 운영되는 특정 기능과 방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도 반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장과 15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디모데전서의 두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 이것이 내 컴퓨터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아니오입니다.

아직 글을 쓰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백업해 두겠습니다. 내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섹션은 2장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유를 고려하여 특정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마지막 몇 절입니다. 바울은 금과 진주를 차고 머리를 땀을 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었습니다. 아니요, 돌아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는 온전한 복종으로 침묵 가운데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다음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겸허 안에 거하면,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문자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와 금을 차고 머리를 땅을 수 없으며, 여자는 잠잠해야 하며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반드시 언급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바울의 주요 초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점은 바울이 교회에 침투하여 분명히 예배에 문제를 일으킨 거짓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맥락화되지 않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앉아서 "나는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촉발되어 현재 교회 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내 도서관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의 영국 학자 브루스 윈터(Bruce Winter)라는 사람이 쓴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그는

1세기의 문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로마 세계에는 새로운 여성, 또는 새로운 로마 여성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비록 이것이 기본적으로 대중과 일반에 의해 눈살을 찌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있었고, 황제, 특히 1세기의 철학자들은 이것이 눈살을 찌푸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로마 제국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그것은 자유를 과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발적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전통적인 결혼 역할과 결혼의 가치를 과시하고 훼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회의 관습과 1세기의 모든 전통적인 역할을 과시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부를 과시적으로 과시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발적인 옷차림을 하고 배우자와 남편에게 무례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것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금과 진주를 입는 것과 땅은 머리와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로마 여성 개념이 제안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로마 여성이 홍보하는 도발적이고 일종의 무례한 방식으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주관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관습을 과시하고, 남편에 대한 무례함을 나타내고, 전통적인 결혼, 결혼의 가치, 결혼 내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무례함을 나타내는 이 새로운 로마 여성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을 화나게 한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이 새로운 로마 여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고 오는 여성들이 예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 철학자들과 일반 로마 대중. 그리고 이제 Paul은 그것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성들이 반항적이고 사회 관습을 과시하며 모든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도발적이고 과시하며 남편을 경멸하고 결혼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새로운 로마 여성, 이런 개념으로 행동하는 여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등등. 그리고 Paul은 그것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왜 바울이 이렇게 쓰는지, 왜 그가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지, 왜 특정 옷차림을 금지하는지, 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지, 왜냐하면 이 거짓 가르침과 아마도 1세기의 새로운 로마 여성 사상이 현재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모든 종류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바울은 그것이 중단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능해요. 어쩌면 그가 매우 절대적인 용어를 말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상황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 제가 즉시 파악하고 싶은 요점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중 하나는 다시 말해서 Paul이 이 본문에서 멈추기를 원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

어쩌면 그것이 교회에 너무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의 유일한 의지는 그것을 끝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이전 편지에서 상황을 처리한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바울이 매우 특정한 문제, 즉 이교도 철학자들과 사회의 다른 사람들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새로운 로마 여성 사상과 함께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고 적어도 몇몇 여성들은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여성들이 다음과 같은 옷을 입으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로마 여성은 사회의 관습을 과시하고, 도발적인 옷을 입고, 결혼과 배우자에게 무례함을 보여 주었고, 바울은 그런 일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옷을 입지 말며, 남편에 대한 무례함의 표시로 남편에 대해 가르치거나 권위를 갖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다른

상황에서도 다른 교회들과 비슷한 말을 할 것인지는이다. 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과 관련된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배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예배의 맥락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의 주요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의도는 단지 여러분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논쟁은 여기 2장에 있는 바울의 지시가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즉 바울이 1세기나 21세기의 어느 교회에서나 비슷한 말을 했을지 여부입니다. 즉,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2장의 바울의 지시가 오늘날에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보편적인가요, 아니면 더 문화적이고 제한적인가요? 바울은 이러한 지시를 1세기 에베소 교회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다른 누구에게도 반드시 해당하지는 않았습니까? 따라서 다른 어떤 맥락에서든 바울은 여자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남자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어떤 교회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 디도에 관한 신약 역사와 문학 강의 25강의 Dave Mathewson 박사였습니다.